

한·인도네시아 경제인 오찬간담회 연설

존경하는 유슈 칼라 부통령님,
모하마드 히다야트 상공회의소 회장,
종기 수기야토 경협 위원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과 금병주 경협 위원장,
그리고 양국의 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면서 여기가 서울인지 착각했습니다. 서울 경제인들이 모두 오셨기에 말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초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이 열세 번째 합동회의라고 들었습니다. 두 나라가 국교를 수립한 이듬해부터 시작했다고 하니, 경제협력위원회는 양국관계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만남도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LNG·석유·목재와 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와 인적자원, 지도력

면에서 명실상부한 ASEAN의 중심국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이제 막 도약 단계인데 아시아 경제를 주도하고 한국의 성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국 간 교역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교역량이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작년에는 무려 32%가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한·ASEAN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무역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수입을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수출과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1,100여 개의 우리 기업들이 이곳에서 약 6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수출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보면 한국이 가장 많은 투자 건수를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 체결한 '투자협력약정'은 이를 더욱 가속화하게 될 것입니다.

양국 기업인 여러분,

저와 우리 기업인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인도네시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유도요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면서, 또 인도네시아 경제를 직접 보면서 협력 가능성이 무척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원자력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20기의 원전을 건설해 오는 과정에서 세계에서 가장 값싼, 가장 품질 좋은 원전을 제공해 왔습니다. 한국과 함께한다면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안전한 원전을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을 계기로 이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이 구체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이곳 자카르타에서는 'ICT 비즈니스 포럼'도 개최됩니다. 이 자리에서 소개될 DMB와 와이브로는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TV를 보고 인

터넷을 할 수 있는 첨단기술입니다. 넓은 국토와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얼마 전 이곳에 문을 연 인터넷접근센터와 IT 인력 초청 연수, 그리고 ICT 훈련센터 건립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와의 산림협력도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진행 중인 50만 ha 조림사업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 밖에도 우리 두 나라는 인도네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군 현대화 사업과 인프라 확충, 에너지·자원 개발 등에서 긴밀히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많은 성공 모델이 나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제인 여러분,

저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최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도약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아체 문제도 이제 해결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정부가 테러에 대처해 나가고 있고 반부패와 혁신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외국 자본과 투자, 그리고 기업 활동을 약간 제한하고 있는 노동 문제 등 몇 가지 문제가 해소되면, 더 이상 인도네시아 발전에 걸림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인도네시아의 변화는 주변 동아시아 변화, 그리고 세계 변화와 더불어 경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업인에게도 인도네시아를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많은 투자를 해 왔습니다만, 인도네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전략이 기계화와 인프라 분야와 같이 기존의 투자와는 다른 새로운 분야에 대해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많은 인프라 투자를 해 왔고 그것을 통해 기술과 자본을 축적해 왔습니다. 지금 한국 내 인프라 투자 기회가 줄고 해외 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와 여건에 도달해 있습니다. 저는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이와 같이 정치·사회적 안정이 정비된 위에서 국가개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곳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부통령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4개 정당이 있지만 5개 정당이 여야 연합정치로 정부를 구성하여 정치·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성숙한 정치적 역량이 있고 아울러 국가적 리더십을 확보한 것인데, 이것은 경제인 여러분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개별기업이 해외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모험적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국가가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가능성을 분석하고 위험 부담을 줄여 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3월에 아프리카 순방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정부 안에 이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특별히 연구하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뒷받침하는 등 정부 내 기구를 만들어 여러분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인 여러분,

우리 한국은 식민지배와 전쟁, 가난을 극복하고 산업화와 정보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과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경제발전 과정에서 한국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 경제인 여러분, 한국과 협력하십시오. 좋은 친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